

# 내부 갈등·리더십 부재...수령에 빠진 새정치

## 비대위장 당내인사 유턴

### “정권보다 당권 우선” 푸념

### 일부 의원 박영선 사퇴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이 리더십 붕괴로 시계 제로의 정치적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두 차례나 당 안팎에서 거부당한데 이어 국민공감혁신위원장으로 추진한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마저 극심한 당내 반발로 철회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으로 참여 여부가 기속이나 끝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까지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특히, 세월호 정국속에서 정치적 활로를 찾을 계기가 될 비대위 구성이 위원장 선임 문제로 터덕거리면서 오히려 계파 전쟁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외부 비대위원장 자체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희상 정세균 김한길 박지민 문재인 의원 등 주요 계파별 중진들과의 회동에서도 상당수 참석자들이 박 원내대표에게 외부 인사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계파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내부 인사를 찾을 수 있느냐다.

당 내부에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고 신망이 두터운 중도 성향의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원혜영 전 원내대표, 유인태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비교적 중도적인 색채를 보이고 있으나 계파 간의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에 대해 특정 계보와 가깝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의를 물음 정하고 조직강화특위 구성과 지역위원장 인선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여서 당내 인사로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요 계파 간의 이해를 넘어서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계파색이 옅은 중도 인사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더라도 당내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비대위원 구성은 계파별 나눠먹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비대위는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주도하는 ‘혁신형’보다는 당내의 현실을 인정하고 계파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관리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감한 사안을 놓고 각 계파가 충돌하면서 비대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새정치연합의 혁신 의지가 빛을 바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각 계파가 ‘정권보다는 당권’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당장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이 결과가 장담할 수 없는 정권 창출보다 우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5명이 14일 긴급 회의를 열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키로 해 박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자리는 박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였다”면서 “참석자 전원이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마주앉은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사진기자회 체육대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보수혁신위’ 뜬다

유승민·정병국·나경원 의원

위원장 후보 놓고 막판 고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4일 “혁신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세월호 국면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5일 최고위원회의에 인선을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애초 추석 직후 혁신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 개혁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하지만, 국회 공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정을 계속 지연시키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장은 김 대표가 겸직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됐지만 정작 본인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당내 중진 의원을 기용, 전권을 위임해 혁신안을 완성하고 구체적 집행 작업을 김 대표가 맡는 형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장으로서는 사무총장 물망에 올랐다 사실상 고사 입장을 전한 유승민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소장파 ‘말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정병국 의원과 지난 7·30 재보선에서 동작에 자력 입성한 당내 유일한 여성 3선인 나경원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이례적으로 외부 명망가 영입을 배제한 대신 개혁적 초·재선 의원을 전진 배치, 혁신 작업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위원으로는 서울시장위원장에서 물러난 재선의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조해진·강석호 의원등 재선과 서용교·강석훈·심윤조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박지경기자jzjkpark@kwangju.co.kr

## ‘대통령 연애’ 발언·‘원세훈 판결’ 비판 등 놓고

# 여·야 의원들 가시돋친 공방전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원세훈 전 국정원의 국정원 댓글사건 1심판결을 놓고도 가시 돋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 설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의장·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나치다”며 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설 의원의 발언은 땅에 떨어진 정치

권의 신뢰를 한순간에 낭떠러지 끝으로 더욱더 밀어버렸다. 자중자약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설 의원 얘기의 본 뜻은 안 받아들이고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만 보는 꼴”이라고 맞받았다.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소재로 소설을 썼던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관대하더니,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총심’의 야당 의원에게는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한 것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 수석대변인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 비판한 데 대해 “인신공격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듯한 글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너지는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린 최소한의 양심이고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일으켜 세우자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z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경찰, ‘성추행 혐의’ 박희태 본격 수사 착수

라운딩 중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라운딩 중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캐디 A(여·23)씨의 신고가 접수돼 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와 주변인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중 박 전 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조사에서 ‘라운딩 중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을 당

했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 측은 “라운딩 도중에 A씨로부터 ‘박 전 의장의 신체 접촉이 심하다’는 내용의 무전 연락을 받았다”며 “A씨가 9월을 마친 뒤 스스로 교체를 요청해 곧바로 다른 캐디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A씨와 무전 교신을 한 골프장 관계자를 비롯해 주변인에 대한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원주경찰서를 방문해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 이 사건 수사는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 측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는 했지만, 정도를 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 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구도청 일방로, 남광주 농협, 전남대병원, 화순, 소리큐보청기, 찬변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둑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